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기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경험: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유계숙*·주수산나**·김종우***

초 록

본 연구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시점에서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는 기혼 성인 남녀의 스트레스 경험을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문항을 연구참여자와 참여자의 배우자, 이웃/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자기기술식 응답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tf-idf 가중치 여휘 빈도와 bigram 분석)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토대로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은 기혼 성인이 경험하는 공통적 스트레스로 나타난다. 특히 젠더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사 및 돌봄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이 여성 중심인 규범적 특성에 의하여 가사와 자녀돌봄으로 인한 여성 참여자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언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젠더 규범에 따라 남성 중심의 가계부양자 모델과 여성 중심의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모델이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중위소득 미만 계층의 여성에게 강한 스트레스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 효과가 두드러졌다. 저소득층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과 자녀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이중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기혼 성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젠더와 계층의 교차적 관계를 통해 구성됨을 확인하며 추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코로나-19, 젠더, 계층, 교차성, 스트레스

*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dongrazi@khu.ac.kr)

** 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jssn@khu.ac.kr)

***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copy3@yonsei.ac.kr)

I. 서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70일 만인 2020년 3월 11일에 이 전염병을 경보의 최종 단계인 세계적 범유행(pandemic)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2009년 범유행하였던 신종플루에 이어 11년 만이다. 전염병의 범유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질병의 차단보다 치료와 억제로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한다(WHO, 2020). 한국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지속해서 개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엄격한 검역을 목표로 신속한 진단검사를 시행해왔으며, 다수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자 확진자 격리 및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해왔다. 또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여 각 개인의 일상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 및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끊이지 않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이처럼 코로나-19의 범유행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는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목격되고 있다. 이에 의료적·임상적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일상생활 차원의 방역과 함께 캠페인, 홍보, 위기상담 등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및 정신건강 관리를 조속히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남순, 2020).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나 고립된 상황에 부딪친 사람들, 임산부와 노약자, 그리고 직장 일과 자녀 양육 및 학습지원·가족 돌봄 등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개인의 젠더와 계층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기구와 정부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과 이에 토대를 둔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전윤정, 2020; UN, 2020). 이는 이전 감염병 확산 사례에서 감염병이 젠더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히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여성의 재난 취약성이 두드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의료나 돌봄 종사자 중 70%가 여성이며(Wenham, Smith, Morgan, & on behalf of the Gender and COVID-19 Working Group, 2020), 의료나 돌봄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은 독일,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에서 약 7:3의 비율로 여성의 감염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lobal Health 5050, 2020).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 및 경제적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특히 여성이나 노인, 숙박이나 음식업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와 같이 특정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권혜자, 2020).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성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인접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한 조망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응답자들이 응답한 자연어 그 자체를 분석하고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젠더와 계층적 맥락에서 드러내 보이는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코로나-19에 관한 대응방안을 젠더와 계층의 이중교차를 반영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문헌 고찰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같이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하는 대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변화와 함께 부정적 영향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이 질병 감염을 우려하여 사회적 접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 성원들이 공조하여 대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개인이나 특정 집단 및 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하여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불신과 혐오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Kanupriya,

2020).

한편 코로나-19의 범유행으로 전 세계의 기업 활동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일시휴직, 감원, 비자발적 실업 등으로 근로자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소득 감소 및 상실 등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약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0년 1분기(잠정)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4%를 기록하였고, 고용에서도 취업자가 19만 5천 명 감소하여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소득 1분위(20% 미만)의 실업·비경제활동인구뿐만 아니라 위기 국면에서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중간계층의 임시·일용직·자영업자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김태완, 2020).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의 불확실성 확산은 개인의 직업 선택 및 기회와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심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Cauchemez et al., 2009).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Paul & Moser, 2009; Wanberg, 2012),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직업의 미래와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맞닥뜨리면서 불안 수준이 증가할 수 있다(Rothstein & Talbott, 2007; Shoss, 2017). 이처럼 개인의 생애에서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고 등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는 상황은 금전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자살자 수가 증가한 선례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은 자살률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및 잠재적인 불안정 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방역을 연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여유진·김성아, 2020).

2. 코로나-19가 개인 심리와 일·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감염병의 확산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각 개인의 심리 건강과 가족·직장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결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증상은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 우울, 걱정, 감염에 대한 불안, 삶의 질 저하, 기능손상이다. 특히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택 격리와 같은 봉쇄정책, 여행 제한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완화정책이 시행될 때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estubog,

Ocampo, & Wang, 2020). 우리나라에서는 검역(quarantine)과 격리(isolation)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거나, 검역은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건강한 사람들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며, 격리는 이미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된 확진자를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건강한 사람들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17). 이처럼 대상에서 차이는 있으나, 검역과 격리 모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검역 기간 중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은 자신이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가족이나 이웃과 지역사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등이며, 이러한 걱정은 임신한 여성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2020). 또한, 특정 장소에 갇혀 일상생활 및 활동을 상실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적·물리적 접촉이 감소하게 되면 권태감, 좌절감, 고립감을 느끼고,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Elovainio et al., 2017; Matthews et al., 2019). 이 밖에 검역 기간 중 물, 음식 등 생필품이 불충분한 경우 좌절감을 느끼고, 검역 해제 이후 불안과 분노를 경험할 수 있다. 검역 기간 중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지침이 불명확하고, 감염병의 확산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역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Reynolds et al., 2008). 개인의 검역 기간이 길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나 분노, 회피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반면, 자발적 검역은 디스트레스나 장기적 합병증을 훨씬 덜 경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개인의 이타적 선택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Brooks et al. 2020).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결과로 각 직장, 학교 등 많은 곳에서 재택근무 및 온라인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일과 가족의 경계나 두 영역에서 수행하는 개인의 역할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일하는 부모들은 학교와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휴업으로 인하여 전일제 자녀 돌봄 수행과 함께 원격수업을 받는 자녀의 학습을 가정에서 지도하고 도와주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재택근무시스템에 적응하여 자신의 직장 일을 수행해야 하는 다중역할 부담을 경험할 수 있다(Ashforth, Kreiner, & Fugate, 2000). 따라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직장과 가정이 상호 분리되어 일과 가족생활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던 패턴과 달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각 가정에서 일과 가족생활이 상호 방해되거나 두 영역의 역할

수행 시 갈등이 발생하여 개인에게 정서적 긴장(Allen, Cho, & Meier, 2014; Kossek et al., 2012)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일과 가족생활 모두에서 저조한 역할수행뿐만 아니라 정서적 소진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Sonnentag, Kuttler, & Fritz, 2010).

3.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과 젠더·계층의 교차성

성인지적 관점이 보편화함에 따라 학자들은 사회에서 구성된 젠더에 따른 지위를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젠더와 다른 사회 체계(예: 직업군, 인종, 소득 계층)의 복합적인 작용에 주목하였고, 이를 ‘교차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교차성은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접근인 동시에 방법론적인 접근방식을 의미한다(Choo & Ferree, 2010). 이론적인 관점에서 교차성이란 권력 차이에 기반한 불평등한 체계나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러한 체계나 구조로서 젠더, 계층, 인종이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Calasanti & Kiecolt, 2012). 예를 들면 미국 흑인 여성의 차별 경험을 분석하면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분석틀을 단순히 개별적으로 적용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므로 교차성의 관점에서 젠더와 인종의 상호성을 분석한다(Crenshaw, 1989; Shields, 2008). 교차성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젠더, 계층, 인종, 연령, 성적지향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억압이나 차별, 특권과 관련된 일상적 경험의 중층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에 방법론적 접근방식에서 교차성은 체계나 구조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거나 상호작용 방식을 드러내 보이는 연구방법을 의미한다(Choo & Ferree, 2010).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특정 경험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위치한 사회적 구조와 관련된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교차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학교나 돌봄 기관의 폐쇄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들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젠더에 따른 역할기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스트레스 지점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돌봄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반적으로 돌봄에 있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Yee & Schulz, 2000).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학교와 보육 시설이 휴업하고, 가족 성원 중 환자가 발생하면서 각 가정의 돌봄 노동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기존

의 성 역할 규범 뿐만 아니라 각자의 권력을 협상하고, 집안일에 투입하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가사노동을 배분하기 때문에(Bahn, Cohen, & van der Meulen Rodgers, 2020)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성인 기혼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시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적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젠더와 더불어 보유한 자원의 차이에 기인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코로나-19 경험이 다르다는 점에서 교차성 관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인의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 즉, 직업 분야와 직종이 전반적으로 젠더에 따라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근로자의 직업안정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도 역시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이 반영되어있을 것이다(World Bank, 2020).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 여성이면서 직업이 없거나 일거리가 불충분한 여성들은 여타 집단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위협으로부터 매우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Gupta & Huston,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남녀 간의 차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같은 젠더 집단 내에서도 소득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컨대 저소득층 여성의 스트레스 경험과 중산층 여성의 스트레스 경험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 자료는 2020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혹은 파트너가 있으며, 만 18세 이상 성인인 남성과 여성이다. 참여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하기 전에 IRB에서 허가한 연구설명문을 먼저 제공하였으며, 이를 읽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726명 중 연구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 97명과 끝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설문 조사 응답을 중단한 89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40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27세에서 68세이며, 평균연령은 43.95($SD=9.06$)세이다. 가구소득 평균은 월 525.61

(SD=252.12)만 원이며, 학력에서는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대상의 85% 이상이 취업 중인 상태였으며, 99% 이상이 혼인 중이었다. 지금 배우자(파트너)와 관계를 유지한 평균적인 기간은 약 17.01 (SD=10.14)년이었으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명(%)		
		전체(N=540)	남성(N=286)	여성(N=254)
연령	M(SD)	43.95(9.06)	44.63(8.57)	43.19(9.54)
	27-39세	183(33.9)	78(27.3)	105(41.3)
	40-59세	320(59.3)	186(65.0)	134(52.8)
	60-68세	37(6.9)	22(7.7)	15(5.9)
가구소득 (만원/1월)	M(SD)	525.61(252.12)	480(230.50)	539.25(274.26)
교육수준	고졸미만	0	0	0
	고졸	75(13.9)	26(9.1)	49(19.3)
	전문대졸	73(13.5)	33(11.5)	40(15.7)
	대졸	330(61.1)	191(66.8)	139(54.7)
	대학원졸	62(11.5)	36(12.6)	26(10.2)
현재 취업여부	미취업	79(14.6)	9(3.1)	70(27.5)
	취업	461(85.4)	277(96.9)	184(72.5)
파트너와의 관계	동거중	4(0.7)	3(1.0)	1(0.4)
	혼인중	536(99.3)	283(99.0)	253(99.6)
관계유지 기간(년)	M(SD)	17.01(10.14)	16.34(9.71)	17.75(10.57)
자녀여부	자녀없음	88(16.3)	36(12.6)	52(20.5)
	자녀있음	452(83.7)	87.4(87.4)	202(79.5)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생각을 기술하도록 요청했다. 첫 번째 질문은 ‘COVID-19로 인하여 귀하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 질문은 ‘COVID-19로 인하여 귀하의 배우자(파트너)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COVID-19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들(예: 친구, 이웃 등)은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문항이고, 두 번째 질문은 배우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인식을, 세 번째 질문은 더욱 일반적인 이웃과 사회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인식을 토대로 응답하는 문항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

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인접한 이웃 및 지역사회에 관한 조망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젠더와 계층의 교차효과를 보기 위해 젠더와 소득을 주요 변수로 선택했다. 분석 과정에서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을 젠더와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젠더와 소득을 교차한 결과를 분석했다. 젠더는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응답자들은 a) 남성, b) 여성, c)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님, d) 유동적 성별, e) 기타 중에서 해당 사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응답한 경우가 100%였고, 그 외 보기에 응답한 참여자들은 한 명도 없었기에 젠더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은 한 달 동안의 세전 가구 소득을 만원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득은 응답자 전체 소득의 중간값(월 소득 500만 원)을 사용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상 집단과 중위소득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균 소득을 사용할 경우 이상값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2. 분석 방법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내용 분석을 위해 자연어로 작성된 텍스트를 통하여 말뭉치를 작성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품사 중 명사, 형용사, 부사를 형태소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고,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 불용어(stopword)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말뭉치에 주로 등장하는 ‘코로나-19’는 R의 한국어 기반의 자연어처리 패키지인 KoNLP(Jeon, 2012)에서 사용하는 사전(NIADic, SejongDic)에 포함된 단어가 아니기에 ‘코로나’를 별도로 사전에 추가하였다.

전처리 후 이 연구에서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주관식 응답을 요약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에서는 ‘tf-idf’를 적용한 가중치 빈도와 ‘bigram’ 두 유형의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R을 활용하여 텍스트 전처리와 분석을 수행했다. 먼저 가중치 빈도는 특정 단어가 과대대표되는 경우를 교정하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Invert document frequency)’를 사용한 가중치를 부여한 빈도를 의미한다(Roelleke & Wang, 2008). tf-idf는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 분야에서 대량의 문서 집합인 말뭉치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탐색, 요약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의 하나다

(Hiemstra, 2000). 정보 검색에서는 특정한 단어(term)가 특정한 주제(topic)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문서의 주제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tf-idf를 고안했다. 단순 빈도(frequency)를 통해 정보를 색인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생기는 과대대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어휘가 단순히 많이 등장하는 어휘인지, 아니면 유의미한 주제를 포함하는 어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고, tf-idf를 통해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Ramos, 2003; Wu et al., 2008).¹⁾

예를 들어, ‘코로나-19’를 키워드로 문서를 수집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코로나-19’는 당연히 다른 어휘에 비하여 높은 빈도로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수집한 문서가 ‘코로나-19’에 관한 문서임을 사전에 알고 있으므로 ‘코로나-19’의 높은 빈도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 어휘 출현 빈도 분석은 텍스트를 요약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나,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정 어휘가 등장한 문서의 수를 통해 문서 집합에서 등장한 특정 어휘의 출현 빈도를 바로 잡은 것이 tf-idf이다. 이렇게 빈도에 보정을 거치게 될 경우, 전체 문서에서 고루 등장하여 빈도가 높은 단어(예를 들어, ‘코로나-19’)는 낮은 가중치가 부여되고, 특정 문서에서 반복해 등장한 특정 어휘(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문서에서 ‘스트레스’)는 높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문서 집합 내에서 어떠한 어휘가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휘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n-gram’ 중 ‘bigram’을 통한 분석도 함께 수행하였다. ‘n-gram’은 주어진 문서 내에서 특정한 형태소가 n번 연속으로 이어질 빈도 혹은 확률을 의미한다(Rice & Robinson, 1975). ‘n-gram’은 연속하는 어휘의 연결을 기술하기 때문에 언어학만이 아니라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생명공학, 연속하는 어휘의 빈도를 통해 자료를 색인하는 정보 검색과 같은 전산언어학 분야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전산언어학에서는 ‘n-gram model’을 통해 확률론적 언어 모형을 설계해 n개의 어휘 사이의 연

1) tf-idf는 어휘빈도(tf)에 역문서 빈도(idf)를 곱하여 산출한다. if-idf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tfidf(t, d, D) = tf(t, d) \times idf(t, D).$$

여기서 $tf(t, d)$ 는 문서 d 에서 어휘 t 가 등장하는 빈도이며, $idf(t, D)$ 는 문서 집합인 말뭉치 D 에서 어휘 t 가 등장하는 빈도의 역수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idf(t, D) = \log(n/df(t)).$$

역문서 빈도에서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로그를 취하지 않았을 때, 말뭉치의 수가 늘어날수록 역문서 빈도의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결 확률을 추정하여 번역, 교정, 음성인식, 챗봇(chat-bot) 제작 등에 활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2회 연결(2-gram sequence)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하는 'bigram'을 사용한다. bigram을 사용할 경우 개별 어휘(unigram)를 보고하는 어휘 빈도표 등에 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량이 더 많다는 장점이 있다 (Collins, 1996). 어휘와 어휘의 연결을 통해 개별 어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정보보다 문맥적 의미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스트레스'를 각각 보고할 경우, 문서 내에서 두 어휘가 중요한 어휘임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반면 'bigram' 형식으로 '코로나-19-스트레스'를 보고하며 '코로나-19'와 함께 '스트레스'가 함께 출현한다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코로나-19'가 '스트레스'와 연결된 개념임을 추정할 수 있다.

IV. 결 과

1. 가중치 빈도(tf-idf) 분석 결과

먼저 코로나-19가 유발한 스트레스에 대한 자신, 배우자,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응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가중치 빈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형태소 중 명사, 부사, 형용사를 추출하여 빈도를 구한 후 tf-idf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아래 <표 2>는 가중치 빈도 상위 20개 어휘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한 스트레스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휘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어휘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추정된다. 연구참여자 본인의 스트레스로는 젠더, 계층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관련 문제나 대외 활동 문제가 언급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스트레스는 젠더, 계층을 불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여행 제한 등이 공통으로 언급되었다. 배우자의 스트레스로서 남성은 주로 아이와 육아 문제를 언급하였고,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문제, 외출이나 활동 제약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을 언급하였다.

〈표 2〉 젠더*소득 가중치 빈도 결과

문항	젠더*소득	주요 키워드 (가중치 빈도 높음→낮음)
질문1: 자신	남성*중위소득 이상	활동, 없다, 사회, 여행, 생활, 거리, 제한, 사람, 마스크, 답답, 자제, 걱정, 감염, 자유, 아이, 모임, 힘들다, 불편, 많이, 경제, 제약, 매출
	여성*중위소득 이상	마스크, 사회, 걱정, 외부, 불편, 사람, 직장, 우울, 불안, 모임, 많다, 제한, 학교, 힘들다, 코로나, 취소, 자제, 경제, 거리, 개학, 같다
	남성*중위소득 미만	사람, 외출, 없다, 생활, 활동, 여행, 사회, 많다, 걱정거리, 불편, 코로나, 착용, 경제, 가족, 불안, 감염, 모임, 마스크, 많이
	여성*중위소득 미만	없다, 아이, 사회, 활동, 마스크, 경제, 걱정, 거리, 생활, 직장, 가족, 코로나, 상황, 외부, 사람, 제약, 자유, 영향, 힘들다, 취소, 우울, 수입, 불안
질문2: 배우자	남성*중위소득 이상	아이, 육아, 외출, 없다, 활동, 답답, 감염, 걱정, 학교, 자녀, 식사, 코로나, 준비, 제한, 자유, 여행, 시간, 힘들다, 생활, 많다, 경제
	여성*중위소득 이상	없다, 활동, 외출, 답답, 코로나, 회사, 경제, 사람, 생활, 매출, 많다, 같다, 감염, 출퇴근, 자제, 사회, 불안감, 걱정, 힘들다, 직장, 제한
	남성*중위소득 미만	아이, 육아, 생활, 자녀, 답답, 많다, 코로나, 외출, 많이, 힘들다, 학교, 활동, 집안, 우울, 불안, 문제, 감염, 조심, 자제, 외부, 없다
	여성*중위소득 미만	경제, 같다, 답답, 직장, 마스크, 외출, 사람, 없다, 활동, 배우자, 많다, 자제, 불안, 걱정, 감염, 힘들다, 생활, 상황, 모임, 회사, 코로나, 출근
질문3: 이웃과 지역사회	남성*중위소득 이상	사회, 경제, 생활, 제한, 거리, 모임, 활동, 없다, 외출, 사람, 감염, 답답, 마스크, 불안, 힘들다, 대인, 문제, 어려움, 자영업, 걱정, 관계
	여성*중위소득 이상	없다, 답답, 외출, 거리, 사회, 모임, 활동, 경제, 여행, 생활, 자제, 우울, 사람, 자유, 불안, 같다, 힘들다, 친구, 아이, 불안감, 두기
	남성*중위소득 미만	스트레스, 경제, 걱정, 답답, 친구, 없다, 거리, 같다, 자제, 외출, 사람, 모임, 많이, 만남, 관계, 코로나, 어려움, 사회, 불편, 불안
	여성*중위소득 미만	스트레스, 답답, 외출, 아이, 같다, 불안, 경제, 없다, 모임, 친구, 사회, 활동, 자유, 거리, 코로나, 자제, 생활, 사람, 비슷, 불편, 걱정, 힘들다

젠더와 계층의 교차효과는 주로 경제 문제와 소득, 젠더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소득은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제 문제를 언급하는 순서를 분석해보았을 때,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경제 문제를 먼저 언급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또한, 젠더에 따라 경제 문제를 언급하는 주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을 남성과 비교하면 여성이 경제 문제를 언급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배우자나 이웃과 지역사회의 경제 문제 언급 시에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젠더와 소득을 교차하여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미만 여성 집단에서 직장, 회사 등 경제 문제를 본인, 배우자,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주로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미만 남성 집단에서 사회활동의 제약과 사회적 거리 두기, 자녀 양육 관련 문제를 자신과 배우자의 주요 문제로 언급하는 반면,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에만 경제 문제를 보고하는 경향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상

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연구참여자의 소득수준이 낮거나 여성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를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결과로, 남성은 자신의 문제보다 배우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아이, 자녀 문제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여성은 본인과 이웃 및 지역사회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우울, 불안 언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다.

2. 바이그램(bigram) 분석 결과

가중치 빈도를 통해 추정된 결과는 바이그램을 통해 더 상세한 서사를 구성할 수 있었다. 바이그램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중치 빈도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의 구체적인 서사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그램 빈도 상위 20개의 결과를 정리했다. 먼저 아래 <표 3>은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바이그램 결과이다. 바이그램은 ‘어휘1’과 ‘어휘2’의 연결 빈도로 측정하였다(예: ‘어휘1’이 마스크, ‘어휘2’가 착용인 경우, ‘마스크-착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앞선 가중치 빈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의 젠더, 소득과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구참여자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서 외출 자제에 따른 스트레스, 육아와 학교(등교 유예 등)에 관한 스트레스도 공통으로 언급되는 결과이다.

<표 3>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한 젠더*소득 바이그램 결과

젠더	남						여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어휘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1	마스크	착용	7	사회적	거리두기	9	사회적	거리두기	7	사회적	거리두기	4
2	사회적	거리두기	4	외출	자제	4	마스크	착용	3	아이들	학교	4
3	외출	답답	3	스트레스	외출	3	걱정	아이들	2	마스크	착용	3
4	가족들	시간	2	외부	활동	3	건강	걱정	2	해외	여행	3
5	거리두기	모임	2	거리두기	모임	2	답답	활동	2	걱정	마스크	2
6	걱정	스트레스	2	걱정	감염	2	등교	아이들	2	걱정	사회적	2
7	사람	접촉	2	마스크	눈치	2	마스크	사람	2	답답	마스크	2
8	상황	경제적	2	사람	대면	2	상황	사회적	2	마스크	답답	2

젠더	남						여					
소득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어휘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9	아이들	학교	2	스트레스	사회적	2	스트레스	사회적	2	마스크	착용	2
10	언제	감염	2	스트레스	마스크	2	스트레스	팬데믹	2	미안한	마음	2
11	여행	모임	2	스트레스	사람	2	외출	답답	2	불안	답답	2
12	여행	못가	2	외출	마스크	2	학교	가지	2	스트레스	답답	2
13	외출	자유	2	외출	여행	2	활동	제약	2	스트레스	마스크	2
14	외출	자제	2	육아	스트레스	2	가계운영	어업	1	스트레스	아이들	2
15	유치원	등원	2	자유	답답	2	가격	전체적	1	스트레스	외부활동	2
16	이용	두려움	2	자제	마음	2	가슴	답답	1	스트레스	평소	2
17	자제	스트레스	2	자제	스트레스	2	가정	시간	1	여행	사람들	2
18	가게매출	감염우려	1	활동	스트레스	2	가정경제	어려움	1	여행	친구들	2
19	자가격리	사람들	1	가상	증상	1	가정경제	영향	1	영향	걱정	2
20	가사	없음	1	가정	금전적	1	가족	걱정감염	1	외출	스트레스	2

먼저 젠더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요인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면 ‘걱정’과 연관된 응답이 빈번한 특징을 보인다. 젠더와 소득을 함께 분석하였을 때, 여성 중위소득 이상 집단이 직접 스트레스를 언급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중위소득 미만 집단에서는 가계곤란 등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 중위소득 미만 집단이나 여성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는 여행과 외출 제한을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하는 빈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결과는 연구참여자 자신의 스트레스에 관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배우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전반적으로 연구참여자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육아와 자녀 문제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한 점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위소득 이상 집단의 경우, 젠더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배우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서술하는 양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젠더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 양육과 연관된 문제를 주로 언급하는 반면, 여성은 경제적 곤란, 실직 등 경제 상황에 관한 문제를 배우자의 문제로써 주로 언급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과 별개로 연구참여자의 젠더 특성이 배우자의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 부부의 남녀 성 역할 규범에 근거하여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문제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중위소득 미만 집단은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계층 구성 요인이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스트레스 원인과 직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득과 젠더의 교차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성 중위소득 미만 집단은 배우자의 문제 중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언급과 함께 우울감을 보고하는 예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여성 중위소득 미만 집단은 배우자의 경제, 가계 곤란 문제 등 경제적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는 배우자의 출퇴근 과정에서의 감염 우려 등을 언급하였고, 남성 중위소득 이상 집단과 달리 배우자의 경제적 문제도 함께 언급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표 4〉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젠더*소득 바이그람 결과

젠더	남						여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어휘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1	자녀	학교	3	학교	가지	4	사회적	거리두기	3	스트레스	회사	3
2	사회적	거리두기	2	아이들	학교	3	경제적	불안	2	스트레스	마스크	3
3	스트레스	마찬가지	2	감염	걱정	2	경제적	스트레스	2	고용	불안한	2
4	스트레스	병원	2	스트레스	스트레스	2	마스크	착용	2	대중교통	이용	2
5	스트레스	아이들	2	식사	준비	2	스트레스	직장	2	외출	스트레스	2
6	스트레스	자녀	2	아이	어린이집	2	스트레스	경제적	2	외출	자유	2
7	아이들	시간	2	육아	스트레스	2	스트레스	사회적	2	이용	출퇴근	2
8	아이들	하루종일	2	육체적	정신적	2	실직	압박감	2	재택근무	업무	2
9	외출	자제	2	자녀	학교	2	외출	답답	2	회사	매출	2
10	우울감	아이들	2	집안	생활	2	종사자	업무	2	가계	경제	1
11	육아	스트레스	2	가정	배우자	1	가정소득	배우자	1	가능성	증가	1
12	자녀	교육	2	가정	스트레스	1	가족	평소	1	가능한	외출	1
13	가사일	스트레스	1	가정일	소홀함	1	가족생계	육아	1	가장	무게	1
14	가정내	보육	1	가족	불안감	1	가중	답답	1	가정경제	불안감	1
15	가족	감염	1	가족	친인척간	1	가지	주말	1	가족	코로나	1
16	가지	상기	1	가족감염	불안	1	갈등	마스크	1	가족	바이러스	1
17	간호사	불특정	1	가족	외출	1	감소	가정소득	1	가족들	감염	1
18	감혀있다	생활	1	여러가지	계속적	1	감소	마스크	1	가족생계	막막	1
19	감소	스트레스	1	여러가지	답답해	1	감염	걱정	1	가족안전	문제	1
20	감염	염려	1	여러가지	대외	1	감염	경우	1	가족중	출퇴근	1

마지막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연구참여자 자신의 스트레스 문제에 관하여 서술한 결과와 일부 유사한 양상을 드러내는 특징을 확인했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스트레스에 관한 바이그램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통 스트레스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경제 문제, 외출 제한이 가장 주된 이웃과 지역사회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젠더에 따른 차이도 드러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가정, 가족, 육아 관련한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 남성은 경제 문제를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언급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연구참여자 자신의 스트레스에 관한 서술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소득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문제를 이웃 및 지역사회의 문제로 응답한 경향이었으며, 중위소득 미만 집단에서는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중위소득 이상 집단은 감염 우려를 주로 언급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편 젠더와 소득의 교차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감염 우려를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주로 언급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여성 중위소득 미만 집단에서는 육아, 가족 문제를 이웃과 지역사회의 스트레스 원인으로서 주로 언급하였으나, 남성 중위소득 미만 집단은 외출, 여행, 친구 등 사회활동 관련 문제를 주로 언급하고 있어 코로나-19 관련 이웃 및 지역사회의 스트레스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젠더 규범에 입각한 성 역할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5> 이웃과 지역사회의 스트레스에 대한 젠더*소득 바이그램 결과

젠더	남						여					
소득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어휘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1	외출	자제	4	사회적	거리두기	10	사회적	거리두기	4	사회적	거리두기	6
2	사회적	거리두기	3	경제적	어려움	3	다들	비슷한	2	자제	스트레스	3
3	걱정	생각	2	스트레스	사회적	3	등교	직장맘	2	감염	불안감	2
4	경제	정부	2	거리두기	외출	2	스트레스	자유	2	스트레스	감염	2
5	경제적	어려움	2	사회적	관계	2	아이돌봄	걱정	2	여행	쇼핑	2
6	하고	싫은거	2	육아	스트레스	2	외출	답답함	2	외출	답답한	2
7	답답	외출	2	일상	생활	2	외출	자유	2	하루	하루	2
8	못만나기도	민폐	2	가능성	스트레스	1	직장맘	아이돌봄	2	가정	못벌어서	1
9	민폐	생각	2	가족	감염	1	친구	경우	2	가정	신생아	1

젠더	남						여					
소득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중위소득 미만			중위소득 이상		
어휘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어휘1	어휘2	N
10	사람들	여행	2	가족들	돌잔치	1	친구	사람	2	가정	아이들	1
11	생각	하고싶은거	2	가족	친구들	1	학생들	등교	2	가정보육	정신적	1
12	싫은거	경제	2	여러가지	제약	1	가장	실직	1	가족	모임	1
13	여러가지	힘듦	2	각종	비용	1	가정	소득	1	가족	않을까	1
14	여행	불편	2	각종	식당	1	가정	어려움	1	가족	자영업	1
15	여행	사람들	2	감소	결과	1	가족	않을까에	1	가족들	식사	1
16	자제	답답	2	감염	두려움	1	가족간	의견충돌	1	가족	아이들	1
17	정부	정책	2	감염	우려	1	각종	모임	1	여러가지	스트레스	1
18	정책	여러가지	2	감염	위험	1	간과할	부분	1	여러가지	육아	1
19	가족	방문	1	감염	한달	1	감염	걱정	1	각종	모임	1
20	가족	친구	1	감염우려	경제적	1	감염	걱정하기	1	각종	외출	1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으며,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젠더에 따른 성 역할 규범과 소득 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효과가 교차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분석 요인에 따른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

차원	주요 스트레스 원인
공통 요인	격리(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과 피로
젠더 요인	여성 중심의 가사와 돌봄, 남성 중심의 가구 경제 부양(male bread-winner model) 모델의 작동, 성역할 편중
계층 요인	경제 한계 집단의 취약성이 가중, 노동(자영업 포함)의 불안정성 강화
젠더*계층 교차	저소득 여성이 마주하는 자녀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 부담

V. 논 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연구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인접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관한 조망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관련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성인들로 젠더나 계층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 속 대면 상호작용과 외출, 여행, 모임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가 1순위로 나타난 점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사람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감염병의 범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격리를 시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Brooks et al., 2020; Restubog, Ocampo, & Wang, 2020). 특히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시점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던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했는지를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 또한 많이 호소하고 있었으며, 바이러스 감염이나 건강에 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번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걱정이나 답답함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보고되었지만,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정서적 타격을 입는다는 선행연구자들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Bahn, Cohen, & van der Meulen Rodgers, 2020). 그러나 스트레스 영역에 따른 젠더 구분은 자신의 스트레스보다는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응답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남성들은 중위소득 미만이든 중위소득 이상이든 상관없이, 배우자가 자녀와 관련한 학교, 감염, 식사, 어린이집, 육아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는 빈도가 높았다. 즉 남성들은 여성 배우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교가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 아이들의 학교나 돌봄, 육아 문제로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감염병 상황에서도 주요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성이기에, 돌봄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여성이 더 많이 마주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Yee & Schulz, 2000).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스트레스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이슈를 우선순위로 응답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배우자의 스트레스로 자녀나 육아 그 자체를 언급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가정과 같이 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향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남성들이 배우자인 여성을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의 주요한 행위자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들 역시도 배우자인 남성을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에 관해 자신과 동등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이 배우자를 자녀를 돌보는 주요 부양자보다는 가족 전체를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성들은 배우자의 스트레스원으로서 경제적인 요소를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적게 언급했지만, 여성들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직장생활, 수입, 가게운영 및 가정경제에 관한 염려를 배우자의 스트레스원으로서 보다 빈번하게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 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이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성인들의 인식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구조 변동과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 가족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을 남성 생계부양자에 의존하는 경향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스트레스나 자녀와 관련한 응답을 젠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자신의 스트레스원에 관한 응답에서의 남녀 차이보다 배우자의 스트레스원에 관한 응답에서의 젠더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스트레스원에 관한 응답과 배우자의 스트레스원을 보고하는 응답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적 영역이나 자녀양육 영역에서 이러한 간극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실제 경험과 배우자가 인식하는 경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여성 중심 돌봄·양육 관점이나 남성 중심 생계부양자 관점은 성인 남녀 각자의 실제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배우자나 이웃 등 사회적 타자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기존의 성 역할 규범이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응답 중 여성의 응답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면 중위소득 미만 집단과 중위소득 이상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미만 집단의 여성들은 중위소득 이상 집단의 여성들보다 배우자가 경제적인 불안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실직의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중위소득 이상 집단의 여성들은 배우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나 재택근무, 고용과 회사 매출과 같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들 본인의 응답에서는 중위소득 미만 집단과 중위소득 이상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위소득 미만의 기혼 여성들이 남성보다 경제적 요인에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배우자의 소득이나 경제활동이 주요 관심사이며, 가족경제에 대한 상황적 불안감을 더욱 민감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 자신의 개인적 스트레스에 관한 응답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위소득 미만 기혼 여성들이 중위소득 이상 기혼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가족의 생계유지에 관한 불안이나 어려움을 진술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중위소득 미만 기혼 여성들은 교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의 이중 부담을 갖는 취약 집단임을 추론할 수 있다. 중위소득 미만의 기혼 여성은 감염병 범유행의 재난 상황이라는 공통적 스트레스 요인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과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중 또는 다중적으로 취약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은 전반적으로 이웃이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묻는 응답에도 맞게 적용된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이 참여자 개인의 사적 경험을 토대로 체감한 응답이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웃이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더 사회적인 통념 혹은 주변의 공감되는 사례나 기대되는 역할이 반영된 응답으로서 젠더와 계층에 따른 교차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봄 문제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이슈는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웃이나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이슈는 중위소득 미만 및 중위소득 이상 남성과 더불어 중위소득 미만 여성들에서 더 빈번하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위소득 이상 여성들이 응답한 이웃이나 지역사회 사람들의 스트레스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은 가족구조의 변화(통계청, 2017)와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통계청, 2020)라는 사회변동 속에서 그간 점차 약화되어온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유교 문화권의 가부장성이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논의와 같은 맥락이며(허라금, 2012),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경제활동의 축소는 한국 가족에서 전통적 성 역할 규범의 작동 기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재난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남성은 가족의 주 생계부양자이자 보조 양육자지만, 여성은 주 양육자이면서 보조 부양자라는 인식이 기혼 성인들 간에 암묵적 합의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어려움의 이중 부담을 호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수면 아래 있던 기혼 여성들의 사회적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 중 특히 저소득 계층에 속한 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같이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선별적인 육아 지원 및 심리지원제도가 필요하다(여유진·김성아, 2020).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육아나 자녀 교육은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만이 아니라 재택근무나 비대면 교육의 증가로 일과 가족의 경계가 모호해진 화이트칼라 취업모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온라인 부모교육 및 상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실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친 저소득층에게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김태완, 2020). 또한,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보고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들은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젠더와 계층에 따른 스트레스가 점점 더 작용하여 디스트레스화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젠더나 계층과 더불어 취업 여부나 맞벌이 여부 등과 같이 추가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범유행 시기의 어려움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스트레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인 측정이나 스트레스 강도에 관한 정보를 다루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범유행과 관련한 스트레스의 측정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개인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코로나-19 스트레스 경험을 질문함으로써 여러가지 맥락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관한 심층적 탐구를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 면접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파트너십을 가진 성인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경험을 탐구하였다. 특히 80%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이 40-59세 연령층에 속함으로써 자녀양육기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연구대상의 생애주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세밀한 지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스트레스 경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성원들의 연령층에 기반한 생애단계 및 가족생활주기를 포함하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심리학회에서 조사한 스트레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성인들보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PA, 2020). 또한, 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 나눔 등 오프라인을 통해 공적 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던 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함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수급자인 취약계층에 속한 사람들 또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젠더와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교차성을 탐구하였지만,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교차지점에 관해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응답자의 취업 여부나 성인 가족원의 연령, 자녀의 연령, 학력, 파트너와의 관계유지 기간 등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조사가 코로나-19 상황이 한창 심각하여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을 때 실시되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이 회고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을 응답한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직접 경험하는 가운데서 응답하였기에 경험의 현장성을 충분히 담고 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자기기술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설문조사에 비하여 응답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보다 진솔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스트레스는 연구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각각의 질문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주체를 달리하여 이들의 배우자와 인접한 이웃 및 지역 사회에 관한 조망을 포함하여 주변인들의 경험에 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다. 셋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연구결과로서 드러내 보일 수 있었으며, 500명이 넘는 대규모 개방형 응답에 관해서 질적인 특성을 잃지 않고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질적이고 양적인 자료 분석의 장단점을 통합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질적 연구 등 후속연구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젠더와 계층의 교차성을 적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교차성이 드러나는 지점을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에 관한 대응방안을 젠더와 계층의 이중교차를 반영하여 시사점을 논의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2020). 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권혜자(2020). “코로나 19 충격과 여성고용동향” <https://blog.naver.com/futurehope2017/221960235441>에서 2020.7.20 인출.
- 김남순(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73호. 1-12.
- 김태완(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5호. 1-8.
- 여유진·김성아(2020). “코로나 19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2호. 1-12.
- 전윤정(2020). “국제의회연맹(IPU) 성인지적 코로나19 대응 제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56호. 2-4.
- 통계청(2020).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에서 2020.08.28 인출.
- 통계청(2017). “가족의 형태별 분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6에서 2020.08.28 인출.
- 허라금(2012). “젠더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여성의 재난 취약성”. 환경철학. 0(13). 65-90.
- Allen, T. D., Cho, E., & Meier, L. L.(2014). Work-family boundary dynamics.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1(1), 99-121.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20, July 3). *Stress in America: Stress in the time of COVID-19*. <https://www.apa.org/news/press/releases/stress/2020/stress-in-america-covid.pdf>에서 2020.7.8 인출.
- Ashforth, B. E., Kreiner, G. E., & Fugate, M.(2000). All in a day's work: Boundaries and micro role transi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3), 472-491.
- Bahn, K., Cohen, J., & van der Meulen Rodgers, Y.(2020). *A Feminist perspective on COVID-19 and the value of care work globally*.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0.1111/gwao.12459.

- https://doi.org/10.1111/gwao.12459에서 2020.5.13. 인출.
- Brooks, S. K., Webster, R. K., Smith, L. E., Woodland, L., Wessely, S., Greenberg, N., & Rubin, G. J.(2020).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Lancet*, 395, 912-920.
- Calasanti, T., & Kiecolt , J .(2012). Intersectionality and aging families. In R. Blieszner & V. H. Bedford (Eds.), *Handbook of families and aging* (2nd ed., pp. 263 - 286). Denver, CO : Praeger.
- Cauchemez, S., Ferguson, N. M., Wachtel, C., Tegnell, A., Saour, G., Duncan, B., & Nicoll, A.(2009). Closure of schools during an influenza pandemic.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9(8), 473-481.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7, September 29). *Quarantine and isolation*. <https://www.cdc.gov/quarantine/index.html>에서 2020.7.25 인출.
- Choo, H. Y., & Ferree, M. M.(2010). Practicing intersectionality in sociological research: A critical analysis of inclusions, interactions, and institutions in the study of inequalities. *Sociological Theory*, 28(2), 129-149.
- Collins, M.(1996). A new statistical parser based on bigram lexical dependencies. *arXiv preprint cmp-lg/9605012*.
- Crenshaw, K.(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 139-167.
- Elovainio, M., Hakulinen, C., Pulkki-Råback, L., Virtanen, M., Josefsson, K., Jokela, M., ... & Kivimäki, M.(2017). Contribution of risk factors to excess mortality in isolated and lonely individuals: an analysis of data from the UK Biobank cohort study. *The Lancet Public Health*, 2(6), e260-e266.
- Global Health 5050(2020, July 24.). *COVID-19 and healthcare workers*. <https://globalhealth5050.org/covid19/healthcare-workers/>에서 2020.7.25 인출.
- Gupta, A. E., & Huston, A. C.(2009). Depressive symptoms and

- economic outcomes of low-income women: A review of th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and interactionist hypothese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1), 103-140.
- Hiemstra, D.(2000). A probabilistic justification for using tf× idf term weighting in information retrieval. *International Journal on Digital Libraries*, 3(2), 131-139.
- Jeon, H.(2012). *KoNLP: Korean NLP Package. R package version 0.76.5*. <http://CRAN.R-project.org/package=KoNLP>에서 2020.6.1. 인출.
- Kanupriya. (2020). COVID-19: A Socio-economic perspective. *FIIB Business Review*, 9(3), 161-166.
- Kossek, E. E., Ruderman, M. N., Braddy, P. W., & Hannum, K. M.(2012). Work-nonwork boundary management profiles: A person-centered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1), 112-128.
- Matthews, T., Danese, A., Caspi, A., Fisher, H. L., Goldman-Mellor, S., Kopa, A., ... & Arseneault, L.(2019). Lonely young adults in modern Britain: findings from an epidemiological cohort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49(2), 268-277.
- Paul, K. I., & Moser, K.(2009). Unemployment impairs mental health: Meta-analy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3), 264-282.
- Ramos, J.(2003). Using tf-idf to determine word relevance in document queries. In *Proceedings of the First Instruc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242, 133-142.
- Restubog, S. L. D., Ocampo, A. C. G., & Wang, L.(2020). Taking control amidst the chaos: Emotion reg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9, 103440.
- Reynolds, D. L., Garay, J. R., Deamond, S. L., Moran, M. K., Gold, W., & Styra, R.(2008). Understanding, compliance and psychological impact of the SARS quarantine experience. *Epidemiology & Infection*, 136(7), 997-1007.
- Rice, G. A., & Robinson, D. O.(1975). The role of bigram frequency in the perception of words and nonwords. *Memory & Cognition*, 3(5), 513-518.

- Roelleke, T., & Wang, J.(2008). Tf-idf uncovered: a study of theories and probabilities. In *Proceedings of the 31st annual international ACM SIGIR conferen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retrieval*, 435-442.
- Rothstein, M. A., & Talbott, M. K.(2007). Encouraging compliance with quarantine: A proposal to provide job security and income replacement.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 (Supplement_1), S49-S56.
- Shields, S. A.(2008). Gender: An intersectionality perspective. *Sex Roles*, 59, 301-311.
- Shoss, M.(2017). Job insecurity: An integrative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43(6), 1911-1939.
- Sonnentag, S., Kuttler, I., & Fritz, C.(2010). Job stressors, emotional exhaustion, and need for recovery: A multi-source study on the benefits of psychological detach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3), 355-365.
- UN(2020, April 9). *Policy Brief: The Impact of COVID-19 on Women, United Nations*. <https://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20/04/policy-brief-the-impact-of-covid-19-on-women>에서 2020.7.8 인출.
- Wanberg, C. R.(2012).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unemploy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3, 369-396.
- Wenham, C., Smith, J., Morgan, R., & on behalf of the Gender and COVID-19 Working Group(2020). COVID-19: The gendered impacts of the outbreak. *The Lancet*, 395(10227), 846-848.
- World Bank(2020, April 16). *Gender Dimensions of the COVID-19 Pandemic*.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618731587147227244/Gender-Dimensions-of-the-COVID-19-Pandemic>에서 2020.4.17.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 March 11). *WHO director-general's opinion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 <http://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ovid-19>에서 2020.3.12. 인출.

- Wu, H. C., Luk, R. W. P., Wong, K. F., & Kwok, K. L.(2008). Interpreting tf-idf term weights as making relevance decisions. *ACM Transactions on Information Systems (TOIS)*, 26(3), 1-37.
- Yee, J. L., & Schulz, R.(2000). Gender differences in psychiatric morbidity among family caregivers: A review and analysis. *The Gerontologist*, 40(2), 147-164.

Abstract

**COVID-19-related stress experienced by
married men and women:
Focus on the intersectionality by gender and
social class**

Gyesook Yoo*·Susanna Joo**·Jongwoo Kim***

This study analyzes the stress experiences of adults living with their spouses at the time of intensive social distance due to COVID-19, focusing on the cross-link of gender and social class. We comprehensively explored the stress caused by COVID-19, including views on the individual, the spouse, and neighbors/communities. For data analysis, we applied text mining techniques such as 'tf-idf' weight frequency and bigram and analyzed data by four groups based on gender and social class. As a result, the common stress in the COVID-19 pandemic was that social interaction was limited due to social distance. Regarding gender, COVID-19 increased household chores and child-caring in the home, and these activities were biased toward women. As for the social class, the lower-income group have more stress about economic difficulties with COVID-19. Especially, women in the lower-income class are the center of the intersectionality by gender and social class in that they are experiencing double stresses on economic difficulties and parenting in the COVID-19 situation, where the male-centered breadwinner model and female-centered child-care and housekeeping model. The present study had significance to reveal stressful experiences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by applying the intersectionality of gender and social class.

Keywords : COVID-19, stress, intersectionality, gender, social class

* First Author: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dongrazi@khu.ac.kr)

**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Kyung Hee University (jssn@khu.ac.kr)

*** Co-Author: Lecturer, Yonsei University (copy3@yonsei.ac.kr)